

슬픈예수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예수님 당시 어부들에 대한 평판은 부정적이었다. 어부는 인신매매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리는 적으로 표현되었다. 렘 16:16 [I am now sending for many fishermen, says the LORD,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를 보내서 이 배성들을 고기 잡듯 잡아 내겠다].¹

시대의 아픔을 항상 주시하는 조직이 기독교다. 자기시대사람들의 번뇌와 함께 하려는 모임이 바로 기독교다.²

성서는 성직자의 눈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야한다. 성서의 두 주인공은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이다.³

예루살렘성전은 최고법원이 있는 것이요. 정원 71 명인 최고법원의 의장 즉 대법원장은 도 대사제[대제사장]였다. 성전은 종교, 정치, 경제, 사법부를 합친 복합체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집단이다.⁴

막달라 마이라는 어떤면에서 제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다.⁵

우리자신 모두가 개혁주체이면서 개혁대상이다. 우리자신을 개혁대상으로 보는자세를 신학용어로 회개라고 한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심정으로 교회는 살아야한다. 성직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심정으로 성직자는 살아야한다.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는 심정으로 남자는 살아야한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는 심정으로 나는 살아야 한다.⁶

예수의 죽음은 처형부터 장례까지 버려진 죽음이다. 예수무덤에는 꽃도 십자가도 없다. 예수처럼 비참하게 죽고, 쓸쓸하게 장사치러진 분이 또 있을까? 예수는 역사의 희생자 편이다. 역사의 희생자들[보라색 사람들] 에게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아야한다.⁷

¹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31.

²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96.

³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117.

⁴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216.

⁵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384.

⁶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387.

⁷ 김근수. 슬픈예수 (21 세기박스, 2013), 392-393.